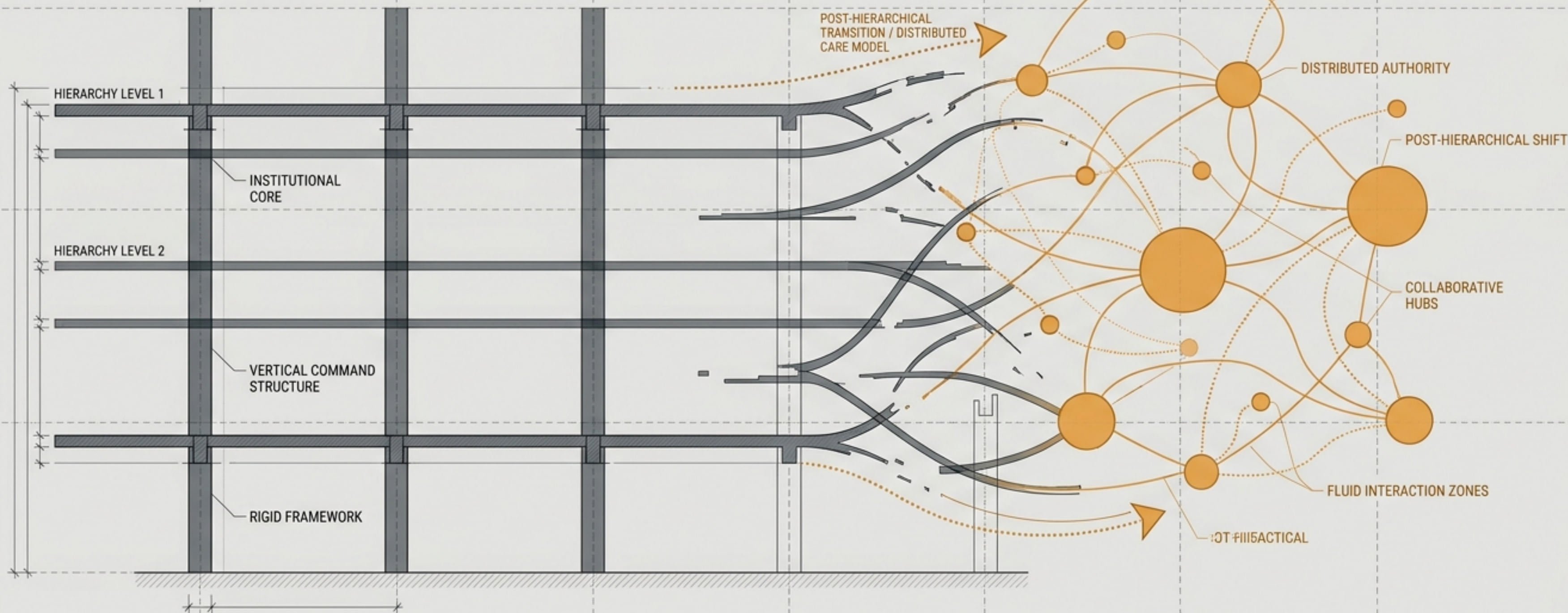


돌봄의 제도는 위계적으로 남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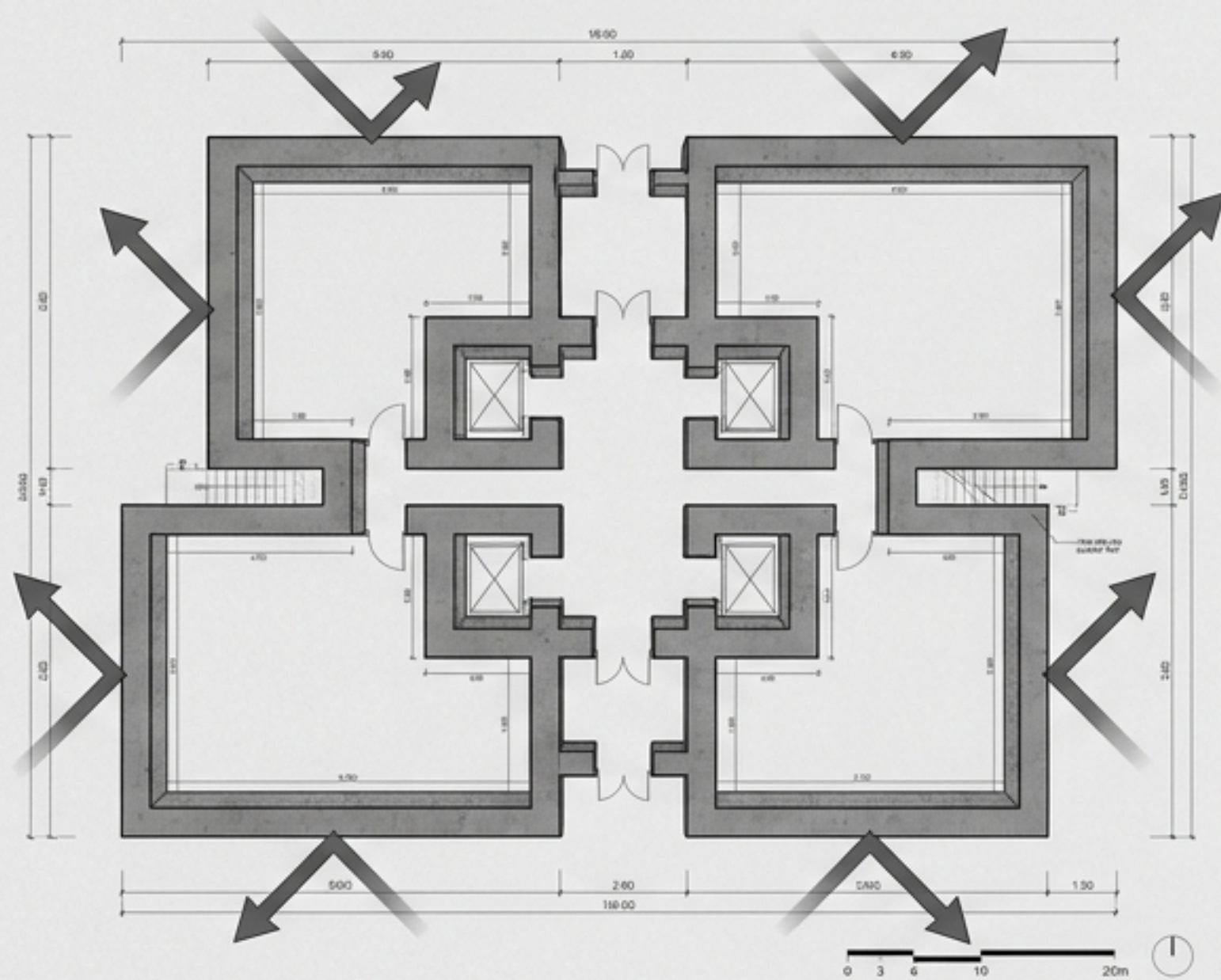
현대 미술 기관의 큐레토리얼 전환과 권력 분배의 착시
(레나타 페트라우스카이테-유오데이키에 텍스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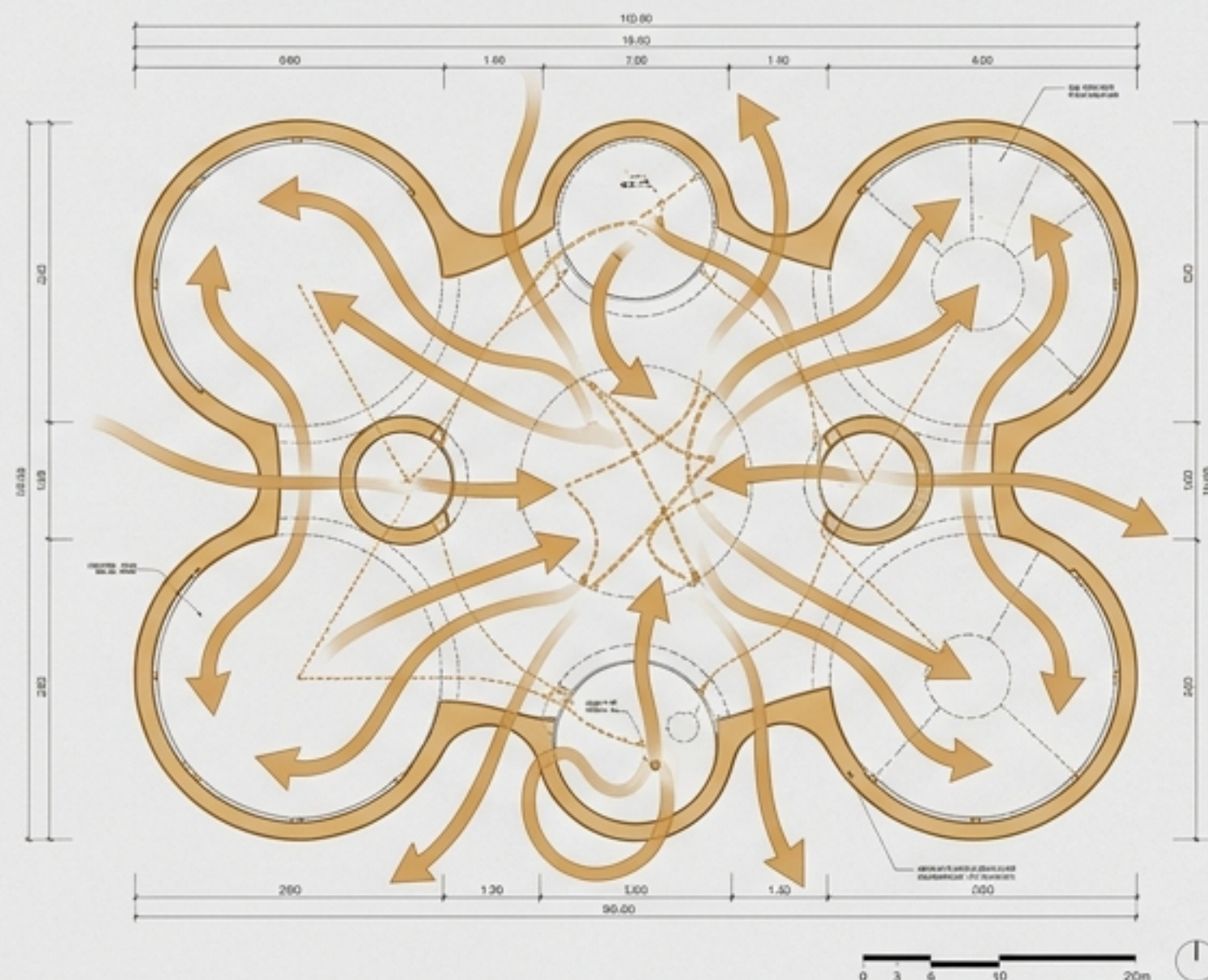
현대 미술 기관은 폐쇄성에서 '돌봄'의 언어로 이동했습니다.

빌뉴스 현대미술센터(CAC)의 전시(「슈퍼글루」, 「종과 대포」)가 보여주듯, 과거의 엘리트주의와 거리감은 돌봄, 관대함, 우정, 포스트휴머니즘적 공존이라는 새로운 큐레토리얼 주제로 대체되었습니다.

과거 - The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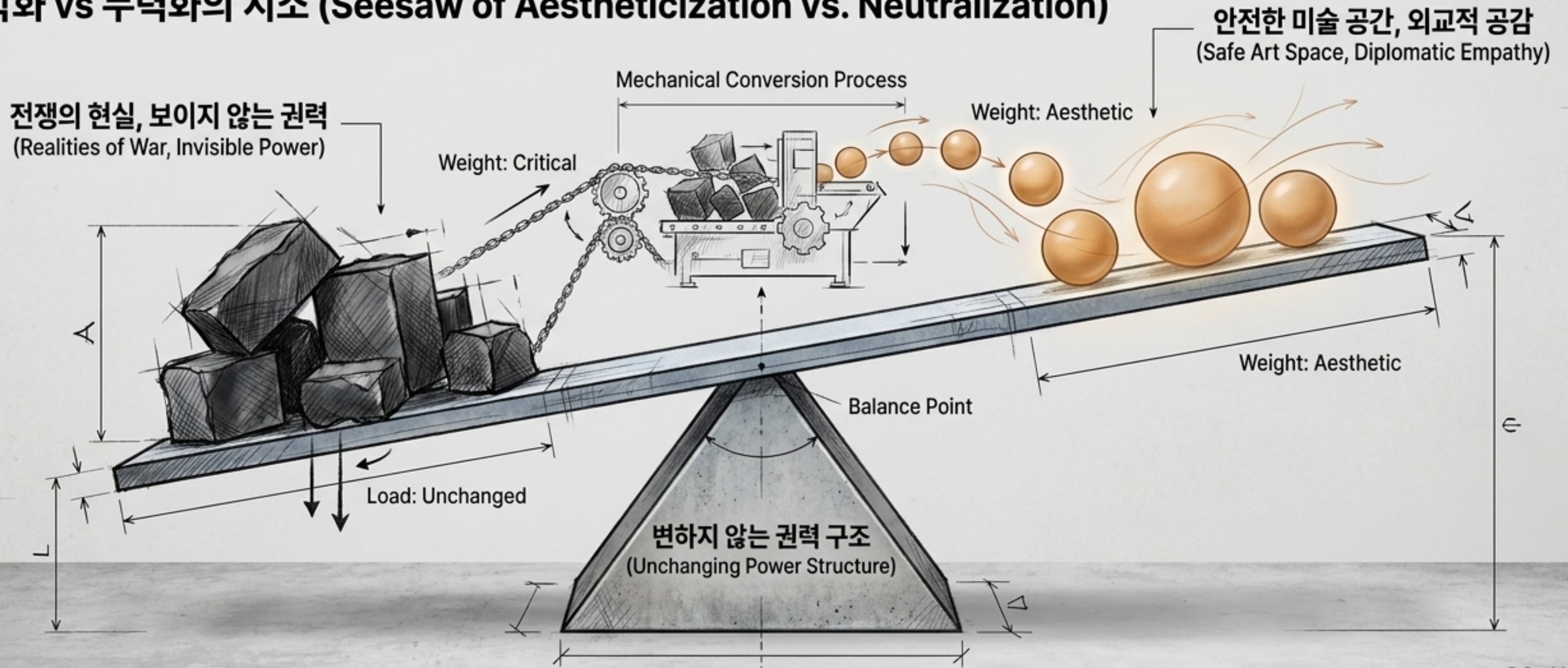
현재 - The Present



그러나, 미술 기관은 사회적 의제를 담은 ‘중립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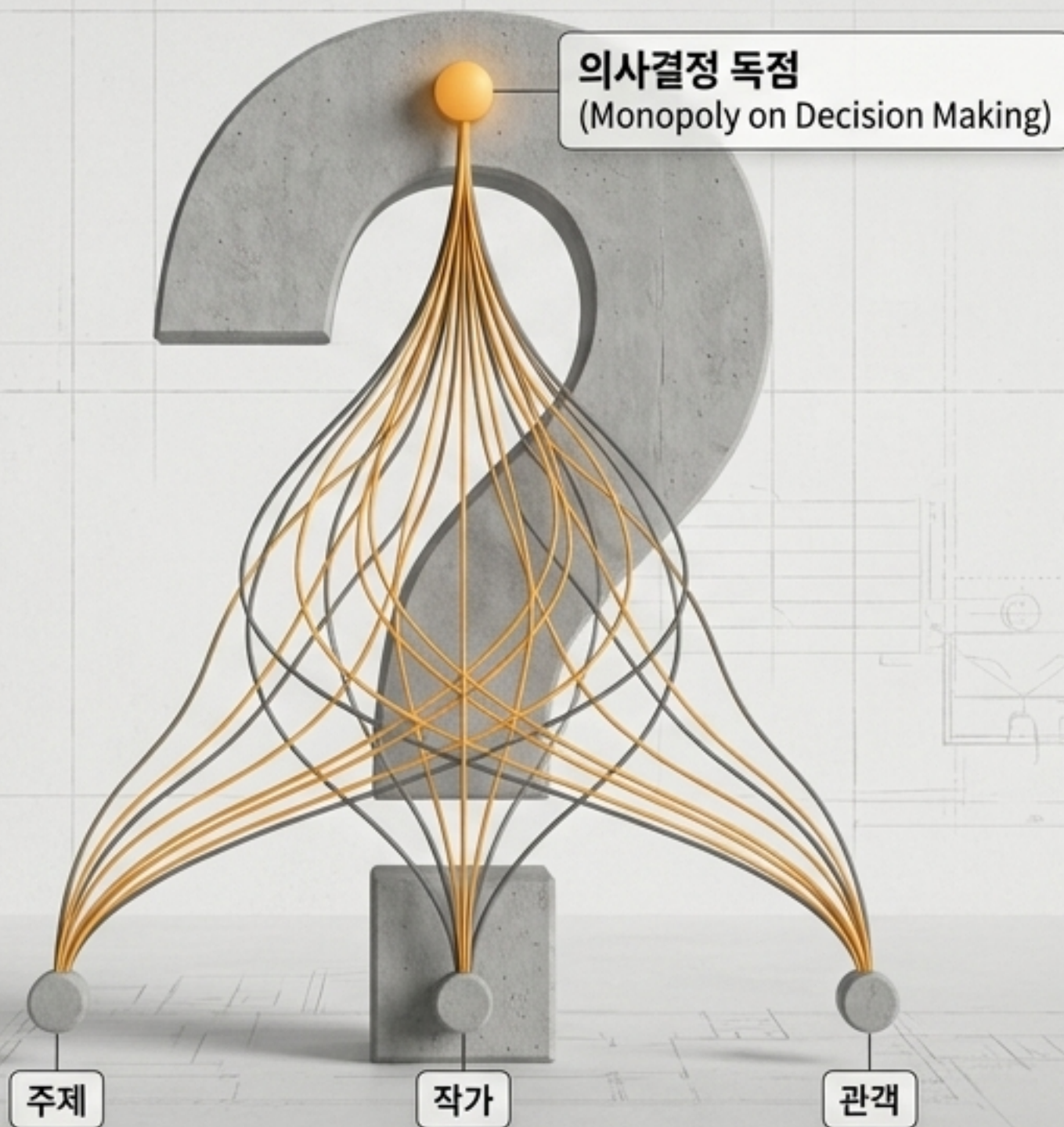
전쟁, 군사화, 식민주의 같은 무거운 주제를 안전한 미술 공간으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는 권력 체계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전환이 오히려 비판을 미학적으로 매력적인 ‘구경거리’로 상품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학화 vs 무력화의 시소 (Seesaw of Aestheticization vs. Neutralization)



기관이 무엇을 선언할지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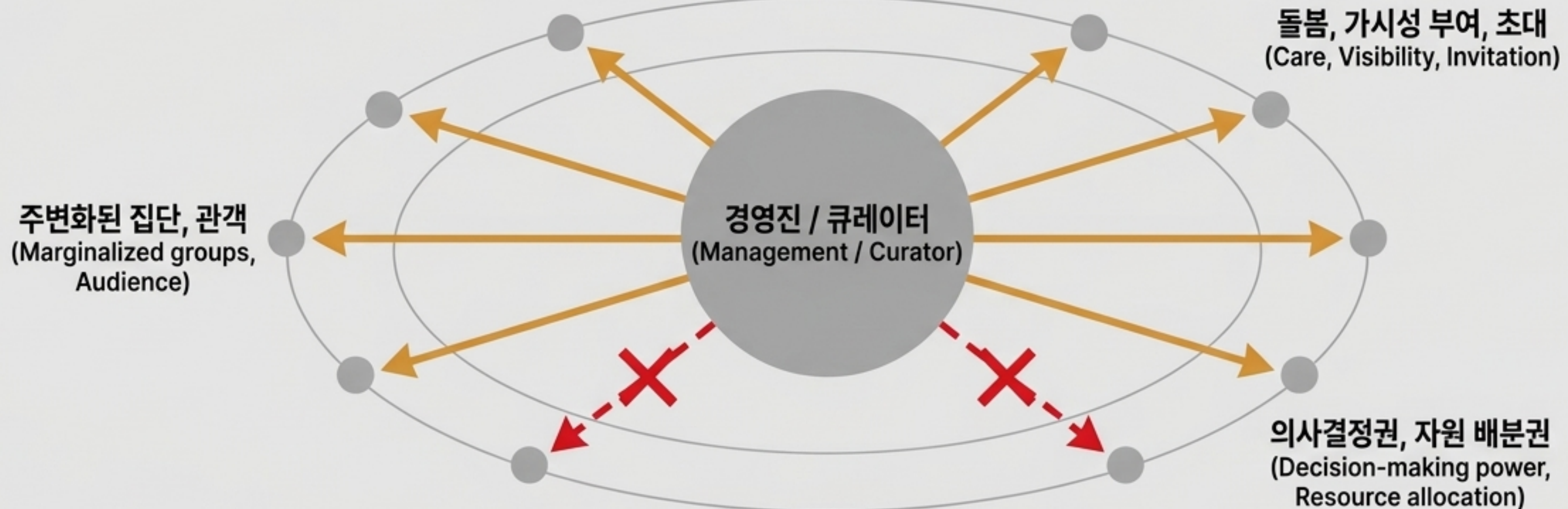
큐레토리얼 전환은 상상력을 넓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돌봄과 개방성을 대표할 작가, 작품, 그리고 정당한 정치적 관점을 선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권력은 과연 분배되었는가?



‘배려하는 위계(Caring Hierarchy)’의 역설: 배려하는 중심도 여전히 중심이다.

포스트휴머니즘적 전시 내용만으로는 포스트위계적 기관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답이 여전히 소수의 경영진과 큐레이터에게 있다면, 기관은 그저 더 섬세하고 지적으로 대담해진 위계 조직일 뿐입니다.

배려하는 중심 다이어그램



착시를 넘어: 배려하는 위계 vs 진정한 포스트위계적 기관

배려하는 위계 (Caring Hierarchy)

포스트위계적 기관 (Post-hierarchical Institution)

프로그램 주체 ○ 중심이 돌봄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 참여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형성한다

포함의 기준 ○ 큐레이터가 포함할 대상을 정한다

○ 문제와 대안이 분산적으로 구성된다

관객의 역할 ○ 관객은 경험과 해석에 초대된다

○ 관객이 기관의 지식 형성에 참여한다

공동창작 ○ 공동창작은 전시의 '주제'다

○ 공동창작은 '의사결정의 방식'이다

관객 참여는 아직 ‘권력의 분배’가 아닙니다.

조각을 만지고 토론에 참여하더라도, 관객은 여전히 ‘타인이 정한 경계’ 안에 머물습니다.
진정한 포스트위계적 전환은 세 번째 단계에서만 시작됩니다.

권력 분배의 3단계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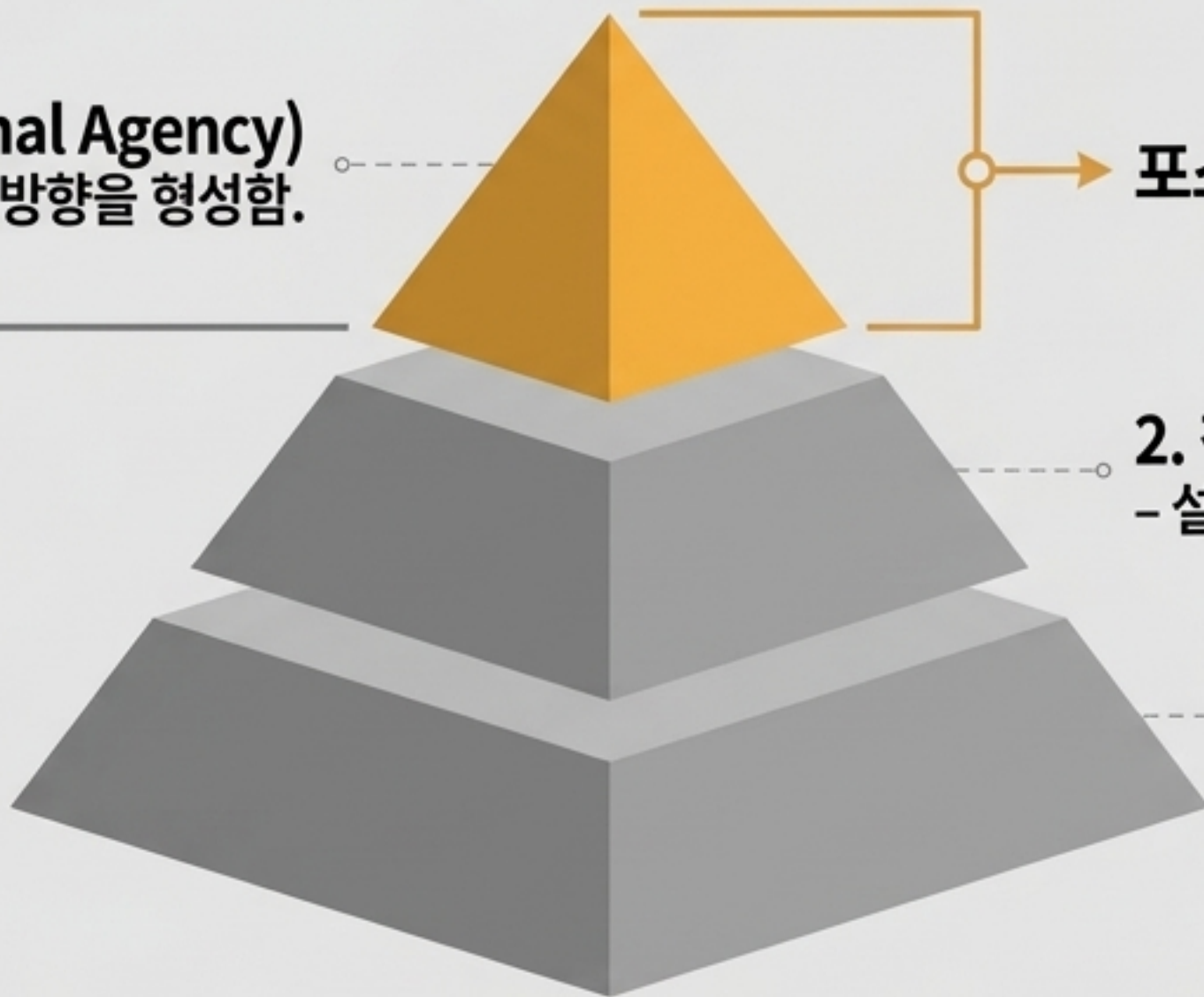
3. 제도적 행위 역량 (Institutional Agency)
-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만들며, 방향을 형성함.

포스트위계적 전환의 시작

위계적 기관에도 존재

2. 참여 (Participation)
- 설계된 활동 안에서 반응하고 토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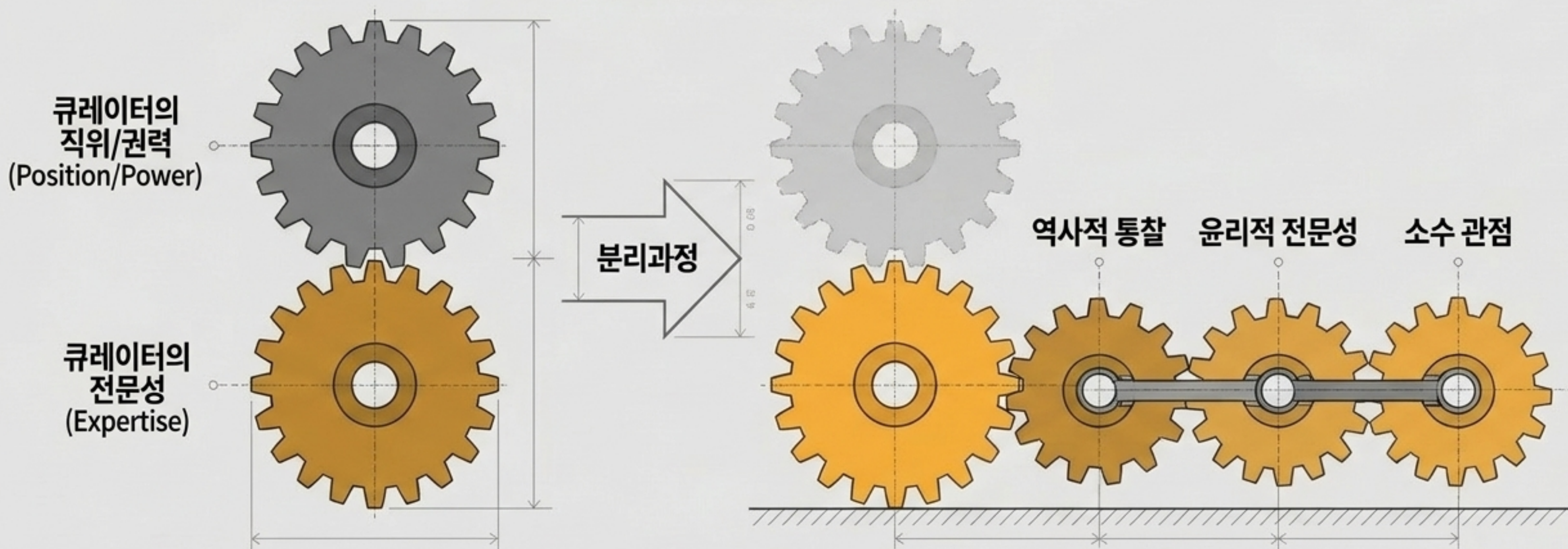
1. 접근성 (Accessibility)
- 기관에 들어가 내용을 이해함.



포스트위계는 전문성의 포기가 아닌, 권력과 전문성의 분리입니다.

예술적 가치를 인기투표나 설문조사로 환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레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제안이 직위의 권력이 아닌, 넓은 집단적 탐구 안에서 '전문적으로 논증된 하나의 대안'으로 재배치될 뿐입니다.

권력과 전문성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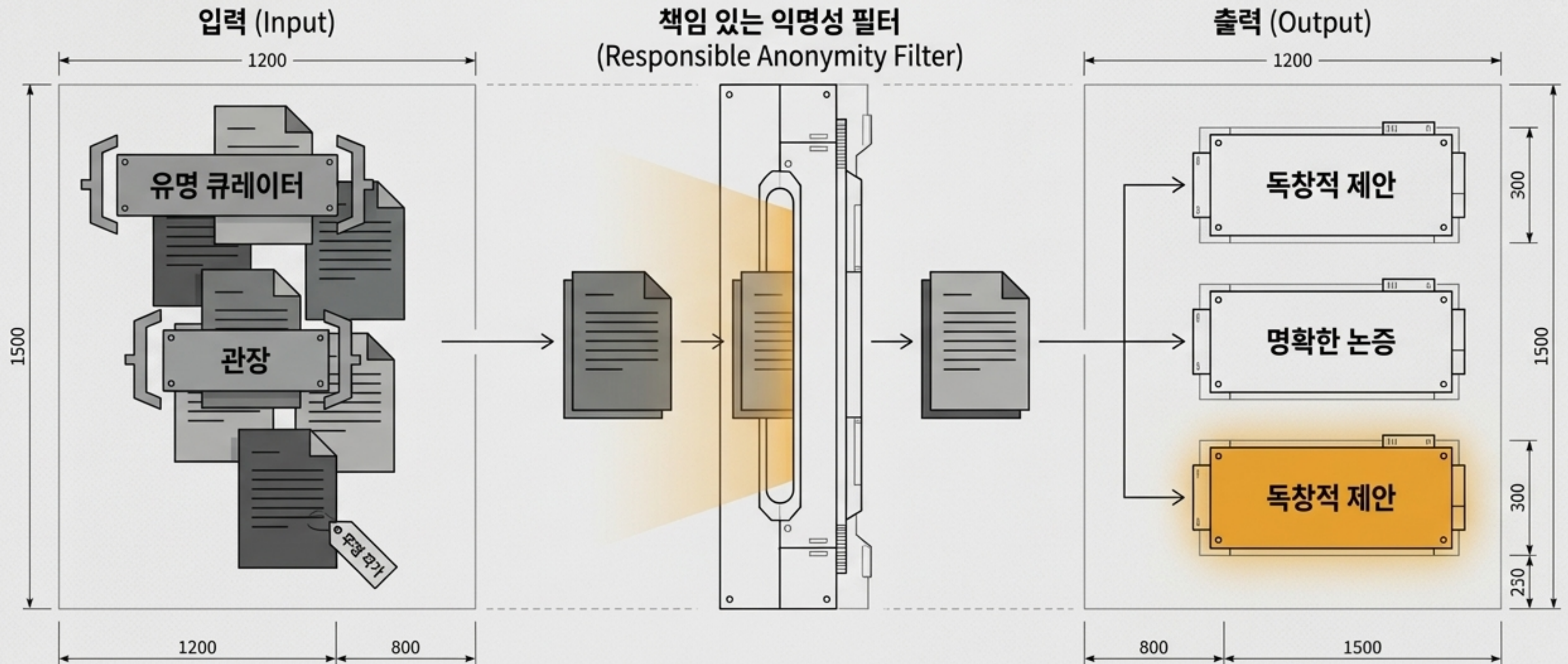
대안의 구조: 지속적인 '집단지성 환경'의 구축

공공 문화기관은 폐쇄된 내부 숙의를 넘어, 작가, 비평가, 관객,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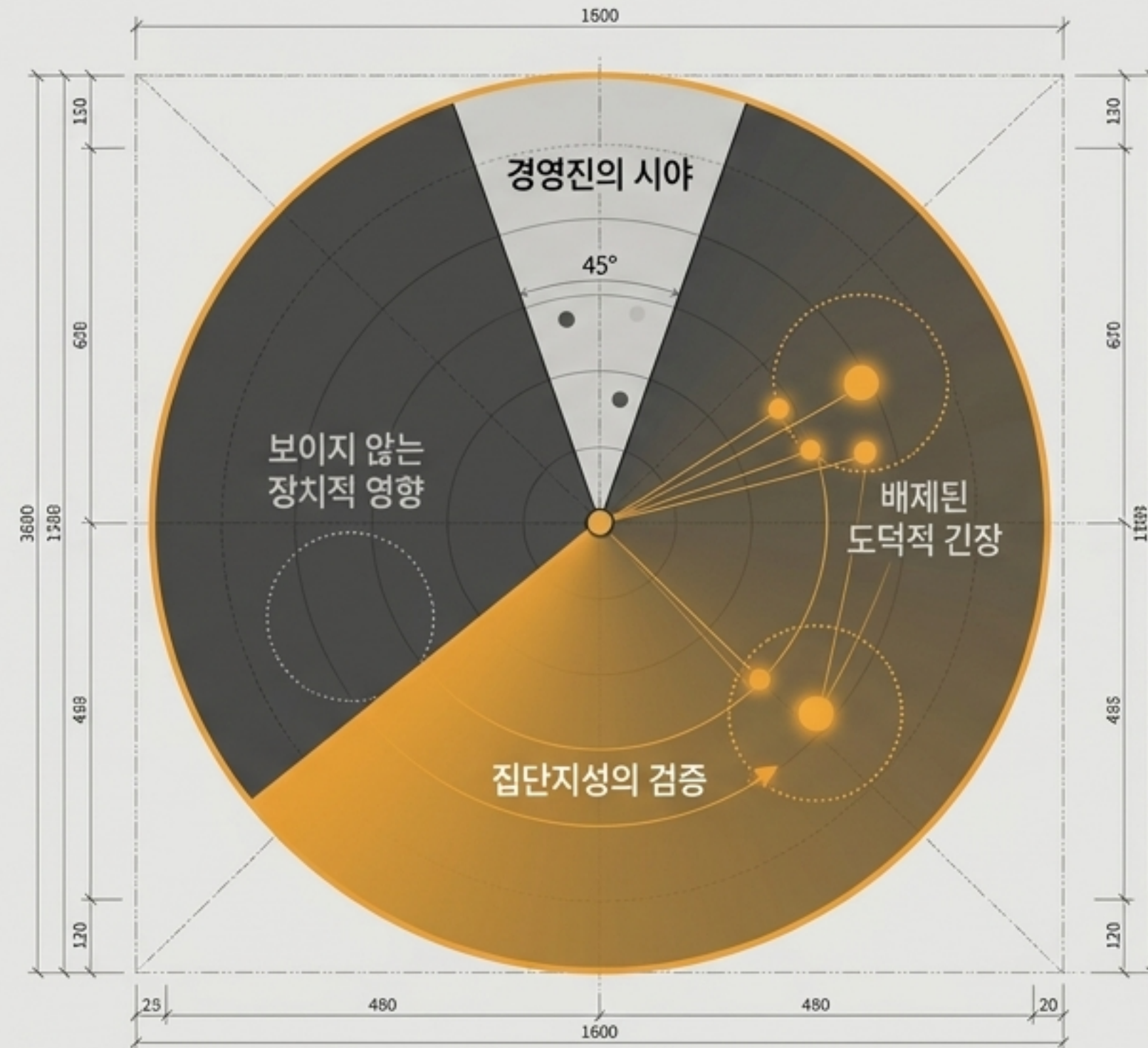
편향을 제거하는 기전: 책임 있는 익명성(Responsible Anonymity)

평가 과정에서 명성, 직위, 소속이 제안의 무게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의 이름표를 떼어낼 때, 기관이 놓쳤던 독창적 제안과 배제된 관점이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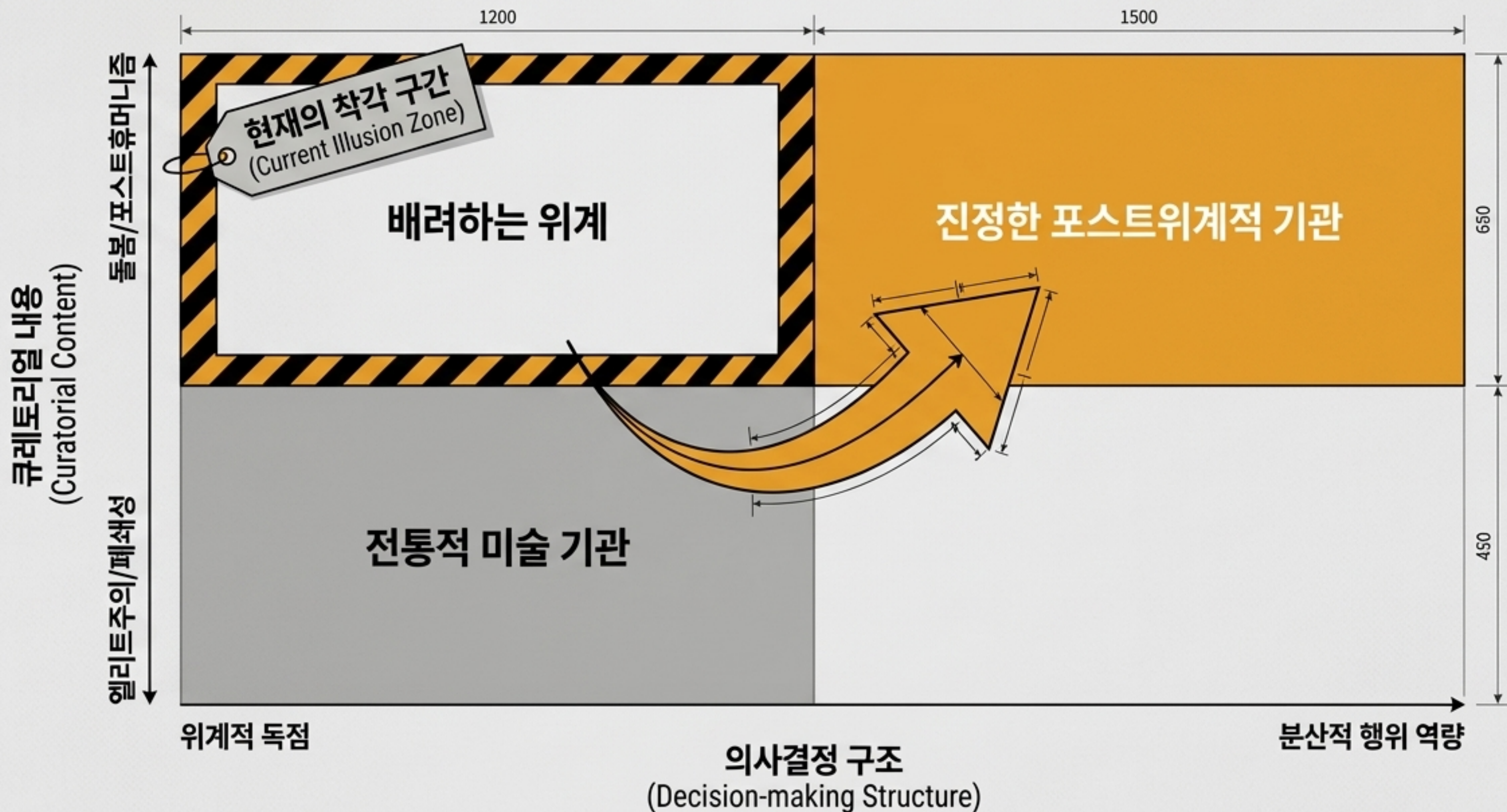


폐쇄 집단의 인식적 한계(Epistemic Limits)를 돌파하다

정치적 순응이나 부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도덕적인 큐레이터조차 자신의 정보적 환경에 갇을 합니다.
집단지성은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관이 볼 수 있는 현실의 한계를 확장하는 '인지적 장치'입니다.



기관의 진화: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누가 결정하는가로





다른 현실을 상상하는 법을 전시하면서, 스스로는 타자와 함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돌봄의 제도는 공동 자원을 어떻게 쓸지에 타인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